

# 만남

06

2023  
통권 592호



# CONTENTS

## 이달의 말씀

02 해독이 필요합니다 김운성

## 특집 I 내가 겪은 6·25

04 피란길, 아버지 손을 잡고 인 미

08 6·25가 이끈 믿음의 길 안인수

# 04



# 22

## 특집 II 2023 북한선교대회

10 “복음 통일”...사랑과 인내로 기도할 때 공수일

13 순교의 피 흐르는 북한  
지하교회 성장에 세계가 주목 김건철

16 복음 통일을 바라는 기도 오계환

## 다음세대

18 지리로 날아간 원발  
주님 뜻 알기 전까진 두려웠습니다 이주은

20 통독하며 하나님의 힘 깨달아 박석영

21 소그룹 덕분에 주님 더 깊이 알게 돼 김주안

22 시간 날 때 번개 러닝,  
주님과 함께 달려요 이윤진·박성욱

24 부모가 중보기도할 때  
자녀는 ‘공부 영적전쟁’ 승리 차길영

###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만수기 9:23)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5대 본질



# 만남

2023년 6월호 통권 592호



## 38

### 아침의 우물가

- 26 대를 이어 배워가는 기도 조한아
- 28 “물둥이를 내려 놓으라”  
천둥처럼 들려온 말씀 김현희
- 30 별이 빛나는 초소...섬 있었네 최진희

### 영락의 울타리

- 33 청년층 빛 고민...성경에 ‘답’ 있다 신이철
- 36 너는 누구의 벗이 돼주었느냐 최원석
- 38 다음세대·3040Acts 함께한 전세대 가족운동회
- 40 우선주차제 6개월...입차대기줄 사라져 김기선
- 43 구역장으로 세워질 안수집사 첫 훈련 강명옥
- 44 내 처방약과 궁합 맞는 영양제 뭘까 문성미

### 문화광장

- 46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종실
- 47 주는 선하신 목자 백정진

### 교회소식

- 50 교구별 새가족 명단
- 52 어린이 주일유아세례
- 53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외
- 60 붉은 색으로 표현한 송고의 아름다움 정재원  
영락시어터 6월 상영 영화

### 6월 목회력

- 02 금 • 연합권찰모임 상반기 중강
- 03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6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11 주일 • 제직회
- 18 주일 • 새가족환영회
- 21~25 • 북한선교대회
- 23 금 • 심방준비회
- 25 주일 • 북한선교주일, 사회봉사주일
- 26~7/1 •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 30 금 • 금요권찰모임 상반기 중강,  
교육부 특별금요기도회

### 표지설명

6.25 피란길에는 아픔과 슬픔의 눈물 자국이 있었다.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살아야 하는 우리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땅에 평화가 피어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절실하다.

## 해독(解毒)이 필요합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열왕기하 14:10)**

사람의 믿음과 됨됨이는 어려울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 더 잘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것도 귀하지만, 형통할 때 겸손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더 귀합니다.

아마샤는 남왕국 유다의 제9대 왕으로 주전 790년에 즉위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주전 798년에 즉위한 요아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마샤의 부친도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신하들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아마샤는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초기에 부친의 원수들을 징계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국내 정세가 안정되자 눈길을 밖으로 돌린 그는 에돔과 전쟁을 벌여 염곡에서 승리했고, 셀라를 정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하 1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욱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런데 에돔에 대한 승리가 아마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불안정하던 때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의 에돔에게 승리한 아마샤는 북벌 정책을 추구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요아스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유로 아마샤에게 경고했습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딸을 보내어 며느리를 삼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딸을 요구하는 것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처럼 방자한 가시나무를 들짐승이 짓밟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에돔에게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우리는 교만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겸손히, 간절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을 선포했고, 결국은 벤세메스에서 참패하여 아마샤 자신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약탈당하였습니다.

아마샤의 태도는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의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월등히 강했습니다. 요아스와 다음 왕인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왕국은 솔로몬 시대 만큼이나 강성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남왕국은 이제 겨우 기지개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에돔의 승리에 고무되어 북왕국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아마샤의 교만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려울 때 극복하는 것도 귀하지만, 잘 될 때 겸손한 것은 더 귀합니다. 만약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하지 못했다면, 북왕국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잘되고 성공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가 강해졌을 때 교만해서 궁궐에 머물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 겸손히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 정국과 6·25의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만해도 좋을까요? 아닙

니다. 오히려 더 허리띠를 동여매야 할 위기의 때입니다.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 지도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가정을 가꾸는 당연한 인생의 과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가정을 떠나 혼자 살고, 남녀의 성별을 무시하고 젠더에 따라 삽니다.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과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와 함께 삶을 진지하게 살려는 노력과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눈앞의 물질과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작은 성공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쓰러진 상태와 같습니다.

6월은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락교회는 해방의 혼란에서 세워졌고, 전쟁의 아픔에서 성장했고, 가난과 무지의 수렁에서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을 필두로 애국 애민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교만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많은 사역을 해 왔다는 자부심이 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간절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해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남**

## 피란길, 아버지 손을 잡고

평양에서 미술 선생님이로 계시다가 전쟁 중에 남쪽으로 내려오신 윤중식 화백이 제 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성북동에서 살았지만, 고향인 평양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고향의 산과 들녘, 황혼, 정미소에 날아들던 비둘기들, 부두에 정박한 배...등 고향은 언제나 아버지의 가슴에 고인 샘물 같았어요. 그 샘물을 길어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셨지요.

아버지는 1·4후퇴 때 아내와 두 딸을 잃었습니다. 그 때 겪은 아픔과 고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피란길에는 종이 한 장 변변한 게 없었지만, 아버지는 주변에 종이만 보이면 챙겨 두었다가 피란길 현장에서 황급히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그리지 않고는 숨을 쉴 수도, 살 수도 없으셨으니까요.

피란길 스케치는 전쟁의 끔찍함을 잊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안간힘이었습니다.

이제 윤중식 할아버지의 그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제 어디로 가지?”

절망하셨을 겁니다.

피란길에 오른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식구들 앞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섭니다.

아버지는 난리 통에서도 우뚝 섭니다.

거인이 됩니다.

위대해집니다.

“아버지 손 꼭 잡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손 놓치면 안돼!

아버지 손 놓으면,

그 순간 너는 고아가 되는 거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시는 못 만나.

꼭 명심해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는 예고 없이 퍼붓는 총알을 피해 겨우 한숨 돌릴 때면,  
종이와 연필을 꺼내 재빨리 스케치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폭격기가 날아왔습니다.

폭격기는 도로를 짝 메운 피란민 대열을 향해 기관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경황이 없던 어머니와 누나는 길 반대 방향으로 달음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머니와 누나와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장소는 사리원과 해주의 중간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큰딸인 혜경이 누나를 유난히 아끼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에 온 아버지는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다 뒤지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누나를 찾아 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군을 만났습니다.

‘개성에서 15리 나와, 구사일생’이라고 아버지는 그림에 써두었습니다.

‘15리’는 6킬로미터를 말해요.

평양에서 피란길에 오른 후 국군을 만나기까지 아버지와 나는 적어도 150~200킬로미터 이상을 걸었습니다. 한겨울의 푹푹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한손으로는 엷은 막내를 붙들고, 다른 한 손은 내 손을 붙잡고, 먹이고 달래고 어르면서 그 먼 거리를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왼손에는 늘 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도 잡고 짐도 들고, 태극기도 흔들었지만,

왼손만은 내 손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얽혀 오던 젓먹이 동생은 끝내 부산에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젓을 얻어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시름시름 앓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따끈한 죽을 먹는 나를 보며, 하늘나라에 간 막내가 떠올라 가슴이 더 미어졌을 것입니다. 피란길 내내 허기졌을 막내 생각에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서울로 온 이후 재혼하여 두 딸을 얻었으며, 성북동 언덕 위의 소나무가 있는 화실에서 새소리와 찬란히 빛나는 사계절의 빛을 그리셨지요.

※ 글·그림은 『할아버지의 양손』 (그림 윤중식/글 윤대경·상수리 펴냄 2023년) 중에서 발췌해 실었습니다. 스케치 원본은 성북구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 아버지 故 윤중식 화백과 아들 윤대경은…

윤중식 화백은 1914년 평양 출생으로, 송실중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만든 백우회(白牛會)에서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일에 적극 나섰다.

졸업 후, 보성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며 이중섭, 문학수, 김병기, 황영수, 이호연 등 당대의 화가들과 미술전을 열었다. 6·25 전쟁은 그의 인생과 그림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아내와 두 딸을 피란 길에서 잃은 그는 아픈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현장 스케치를 멈추지 않았고, 서울 성북동에 자리 잡은 후 실향민으로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 풍경을 주로 그렸다.

윤 화백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성북구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건희 컬렉션'에도 그의 작품이 있다. 최근에는 BTS의 RM(김남준)도 윤화백 그림을 소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월남할 때 겨우 네살이었던 아들 윤대경(사진 오른쪽)은 평생 '아버지의 손'을 기억하고 있다. 그림이 좋아 예원중학교 미술부에 합격했으나 이후 다른 길을 갔다. 이모들(고 김삼환, 정환 권사)의 인도로 영락교회에 나왔으며 베들레헴찬양대를 섬겼다. 지금도 베들레헴찬양대를 돕고 있으며, 아버지 윤화백이 피란 중 그린 28점의 현장 스케치를 70년 이상 간직하고 있다가 2023년 그림책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펴냈다.

글 인미기자



# 6·25가 이끈 믿음의 길

아침에 학교에 갔다. 선생님이 운동장에 서서 오늘부터 학교 오지 말라고 하셨다.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것이다. 친구가 손으로 강을 가리키면서 군인들이 보인다고 했다. 집에 가니 어머니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더욱 궁금했다.

혼자서 강가로 나가니 동네 어른들이 길을 막았다. 저녁이 되니 공중에서 불이 왔다 갔다 하며 요란한 총소리가 밤새껏 났다. 나는 어머니 몰래 밖으로 나갔다. 강 저편에 총알이 이 산과 저 산을 향해 날아다니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무서웠다. 새벽부터 비행기 소리와 포 소리로 요란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면서 산골짜기에다 마구 총을 쏘는데 산골짜기에서는 검은 연기가 무섭게 하늘로 솟고 동네 집들도 타고 있으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에 들은 이야기는 인민군 트럭을 미군 비행기가 다 폭파했다는 것이다. 전쟁은 낮에는 비행기로 폭격하고 저녁에는 적과 총으로 싸운다고 한다. 북한 군인들이 우리 마당에 앉아 있는 것이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엇인

가 만들고 있었다. 인민군이 밥을 얻어먹으려고 왔다는 것이다. 저녁에 어머니는 집 안에 있는 담요와 두꺼운 겹옷 등을 아궁이에 태워줬다. “왜 이 좋은 오버와 담요를 태워요?”하고 물으니 오늘 밤에 다른 동네로 피난 간다고 하셨다. “네 형이 경찰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식구를 다 찾아 죽인데.”

## 8살 때 맞은 전쟁 ... 경찰인 큰형 때문에 온 가족이 밤새 피란

그때 내 나이 8살. 겁이 나기 시작했다. 밤에 짐을 지고 메고 간 곳은 우리 집에서 몇십 리 떨어진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가야리 먼 친척 집이었다. 몇 개월 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이던 큰형님은 국군에 자원해서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군 생활을 한다는 소식이 왔다.

다시 겨울이 왔는데, 중공군이 다시 우리 동네로 들어왔다. 그때부터는 온 동네 사람들이 피란을 시작했다. 중공군은 가정마다 들어가서 여자들의 흰 치마와 방 안에 있는 베개를 다 가져갔다. 베개는 속에 곡식이 들어있는 줄 알고 가져갔고, 흰 치마는 비행기가 뜰 때마다 뒤집어쓰고 아무 데나 옆드리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안인수 은퇴안수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집은 아이들 나이가 다 어려 피란도 가지 못할 형편이었다. 작은형과 남동생, 여동생이 모두 피란길에 들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걸어갔다. 해가 지면 거리나 움막에서 자고, 해가 뜨면 또 가고 했다. 그때 겨우 여덟 살이었지만,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경험은 지금도 모두 생생히 기억한다. 전쟁은 정말 참혹했다.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 겨울 퐁퐁 언 강을 건너다 다쳐 피가 나는데도 계속 걸었다. 목적이인 충남 구(舊) 공주군 계룡면 하대리까지 가야만 했다. 그곳에는 외삼촌과 이모가 살고 있다고 했다.

### **충남 외삼촌 댁에서 일하다 학교 가려고 걸어서 강원도 홍천 집으로**

전쟁이 끝나기 전, 어머니와 동생들은 고향으로 일찍 돌아갔으나 나는 외삼촌 집에 남아서 농사일을 도왔다. 몇 년이 지난 뒤, 집에 가서 학교 다니라고 하여 혼자 고향길로 나섰다.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길도 몰랐지만, 물어 물어 마을로 산길로 며칠 걸려 고향 집에 왔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에 2학년으로 입학하고 바로 4학년으로 월반했다. 중학교 갈 사람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했더니 이번에는 곧바로 6학년으로 월반했다.

내가 교회에 처음 나간 것도 그때다. 『퀴바디스』 소설책을 읽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동네 교회 전도사님이 권유해서 교회에 나갔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군 시절 난데없이 군종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3년 간 군목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 부대 목사님이 베트남에 가시게 되면서 그 자리에 군종 하사관 150명이 지원했는데, 내가 합격했다. 대전 육군병참학교를 마지막 근무지로 제대하고 서울에 왔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 남대문교회의 새벽기도회에 나가 울며 기도하는데 병참학교 시절 내게 교육받았던 교육생이 알아보고 취직에 도움을 주었다. 1970년대 청량리시장에서 장사할 때 어떤 어르신이 “영락교회 가라”고 권유하셔서 그때부터 영락가족이 되었다. 6·25 전쟁이 이끈 믿음의 길, 영락교회의 인도하심이다. **만남**

# “복음 통일”…사랑과 인내로 기도할 때

매년 6월이면 우리는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통일을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엄청난 돈을 써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리를 위협하며 한민족의 통일을 거의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북한을 탈출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닫히고 감시가 강화되어 탈북자 수가 줄었습니다. 강제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올해로 분단 78년이 됐는데, 같은 시기에 분단된 독일은 이미 33년 전에 통일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둘로 나뉘어 시련을 겪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유인 예배부 교사 출신 자매는 강원도의 외진 곳에서 8개국 이상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북녘땅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1년 전 CBS에서 방영된 <새롭게 하소서, 평양의대 윤상혁 교수>라는 TV 프로그램의 영상을 보내 왔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개성 지척 송악기도처에서 기도회

거대한 점보 비행기나 인공지능 컴퓨터와 로봇 같은 복잡한 것들도 단순한 부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통일을 위한 복음 사역도 작은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북방선교’, ‘북한선교’,

‘통일 선교’ 등의 이름으로 복음 통일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함께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6월 중에 열리는 북한선교대회에는 온누리교회 한중희 목사와 소망교회 강디모데 전도사가 강의합니다.

독일 통일도 기도가 출발점이었습니다. 1982년 라이프치히-니콜라이 교회의 월요기도회로 통일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90년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우리도 개성공단을 보며 송악기도처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1999년 12월 14일 정부와 군대의 도움으로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건물은 낡아서 보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송악기도처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북한 신의주에서 시작된 영락교회와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성도가 이곳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특별기도회, 영락포럼, 전시회 등 열려

이번 선교대회의 주요 이벤트는 경주제일교회의 정영택 목사가 <인내의 사랑으로 바라보라>라는 주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10)

로 복음 통일에 관해 말씀을 전하는 저녁예배입니다. 이 주제에 맞춰, 우리는 북한선교대회 30일 전부터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개인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6월에 있을 기도회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길 바랍니다. 수요기도회에는 <북한동포사랑기도회>로 열리고 이때 하나원에서 사역하는 몇몇 목사들과 북한에서 온 자유인들이 간증합니다. 6월 23일 <북한선교 특별심야기도회>는 김운성 위임목사를 모시고 저녁 10시까지 진행합니다.

특히 6월 17일(토)에는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송악기도처에서 특별한 기도모임을 갖습니다. 이후에는 인근에 있는 해마루촌 강당에서 이철신 원로목사의 ‘북한 고향 교회 세우기’ 특강이 열리며 이를 통해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6월 18일(주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영락포럼에서는 오랜 기간 고위 외교관을 지낸 국제관계 전문가인 은누리교회 한충희 목사를 모시고 세계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 토의하고, 직시하고자 합니다.

베다니광장에서는 북한선교 권역별로 부스를 설치하여 분단 전 고향교회를 기억하며 북한 음식 체험, 포토존, 어린이들의 통일 기원 작품 전시 등도 열립니다. (구)만남카페 자리에서는 북한 현실 동영상을 연속으로 상영하고, 50주년기념관 B1에서는 자유인예배부의 탈북자유인 전주영 작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 소극장에서는 통일부가 제공하는 최근 북



작가 전주영(자유인예배부)의 작품(내면) · 나무는 하나의 개체가 아닌 외롭게 이산가족이 된 우리를 나타내며 저 멀리 북한 땅을 향한 그리움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얼마 전 영락교회공원묘원 7구역에서 평양신학교(장로회신학교 전신) 첫 졸업생 한석진 목사의 묘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묘소는 한경직 목사의 묘소 근처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설렘니다. 평양신학교가 첫 졸업생을 낸 1907년은 이완용 내각이 만들어지고, 고종 황제가 순종 황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등 복잡한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포로였던 시기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사랑과 인내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 2023 북한선교대회

##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

### 북한선교대회 세우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라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18)

# 6월

북한선교대회  
주요일정

4(주일)		30일 기도카드 배부	본당 및 부속실
7,14,21일(수)	수요1,2부	북한동포사랑기도회, 간증 및 영상	본당
17일(토)	오전9시	송악기도처 기도회	송악기도처
18일(주일)	오후1시50분	영락포럼(한총회 목사)	선교관
23일(금)	오후8시	북한선교 특별금요기도회	본당
25일 (북한선교주일)	1-5부	북한선교주일 예배 및 공동기도문, 홍보영상	본당 및 부속실
	오후5시	찬양예배(정영택 목사)	본당
	종일	광장행사(북한교회세우기, 공연, 북한영화상영, 자유인작품전시)	베다니광장

※ 교육부 연계 프로그램(공모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 순교의 피 흐르는 북한 지하교회 성장에 세계가 주목

북한에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중에 복음 훈련을 받은 후, 선교사로 북한 땅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다 순교하신 분도 17분이나 됩니다.

북한은 순교의 피가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발각된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며 지하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선교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세계 여러나라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북한 선교의 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모퉁이돌선교회 선교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반석 목사(모퉁이돌선교회 총무)가 전한 아래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는 “북한의 지하교회는 은밀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장하여 왔다”며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책과 문서에 정리된 순교한 성도수만 16,98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953~1972년 10,897명이 순교했고, 1972~1988년 299명, 1988~1995년 741명, 1995~2006년 3,720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조직체(교회)에서 발각된 성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지하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북한의 지하교회가 김일성의 공산정권

아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제 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초대 지하교회 형태를 갖추며 북한의 지하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뿌리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2020년 북한 내 14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질병과 굶주림, 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며, 전체 25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 중 5만에서 7만 명이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2023년 북한선교대회’를 준비하며, 북한 선교의 소명을 영락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북한선교의 생생한 증언을 전합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기독교를 탄압해도 다음 글에 소개된 것처럼, 북한에 사역자를 세우는 일과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북한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또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탈북자들, 사역자·순교자가 되다

- 최광 목사<sup>1</sup>

사역자 세우기 1차: 1998~2001년

2차: 2008~2010년

나의 북한선교는 1998년 8월 단기선교로 시작됐다. 나는 과거 4대째 신앙 가정을 믿음의 배경으로 가졌으나, 교회에 출석만 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36세의 늦은 나이에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 회개와 거듭남을 가졌다. 변화된 나는 1998년 총신대학교 신대원 3학년 때 전도사 신분으로 중국으로 가서 북한선교를 시작했다.

나는 북한선교 방법으로 북한 출신의 북한선교사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북한을 빠져 나온 이들이 통독과 암송을 통한 말씀 훈련, 장시간의 기도 훈련, 그리고 함께 생활하며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공동체 체제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거듭남을 가졌다. 재정은 100%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했다.

1차 사역은 1998~2001년 이루어졌다. 북한을 탈출해 나온 형제 350여 명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생활하며 성경통독 100독 등 강도 높은 선교사 양성 훈련을 진행했다. 1년 간 합숙하며 신약 100독, 구약 10독, 매일기도 2시간 이상, 말씀 암송 1,000절 등 각종 선교 훈련을 했다. 1차 사역 중 1기로 1998~1999년 8명의 북한(탈북민) 출신 북한선교사를 양육, 파송했다. 다음 1년 후의 2기 사역은 1999~2000년 23명의 북한선교사를, 그 다음 1년 후의 3기 사역은 2000~2001년 50명의 북한선교사를 양육 파송했다. 그러나 4기 사역에서 어려움이 벌어졌다. 100명 이

상의 탈북민을 모집해 사역 중이던 2001년 6월, 내부 밀고로 76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들 중 50여 명이 복송 당하여 10여 명이 순교했다. 나는 2001년 강제 추방되었다.

7년 후 중국에 재입국할 수 있었다. 2차 사역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중국 3개 지역에 6개소의 성경 통독 사역장을 세웠다. 탈북가정 순회 방문 사역을 통해 말씀 양육을 하고 한국 구출사역을 전개했다. 이 기간 동안 거듭남의 열매로 250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1998~2001년 1차 중국 사역의 열매는 80인의 북한 출신 북한선교사다. 이 분들 중 8인이 현재 한국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계신다. 탈북민 350여 명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 2008~2010년의 2차사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50인의 거듭남의 열매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17인의 탈북민 북한선교사가 순교했다. <탈북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 통일 만세. 칼빈·요한> 1기 북한선교사 진칼빈·박요한 선생은 북한 입국 전 도문 국경 부근 벽에 이렇게 글을 새겨두었다.

### 순교자 17인 - 1차 북한선교사

주광호 선생, 진칼빈 선생, 박요한 선생, 장만식 아버지, 김누가 선생, 김주복 선생, 민선주 선생, 정용철 선생, 강규홍 선생, 이용섭 선생, 정모세 선생, 조복화 선생, 김철수 선생, 김기철 선생, 신용재 선생, 이신장 선생, 김예진 선생.

<sup>1</sup> (대전신학대학교 교수·열방빛선교회·황금종교회) '북한선교의 개척자, 탈북 목회자들의 아버지'로 불린다. 저서로 '내래 죽어도 좋습네다' (생명의 말씀사) 시리즈 4권이 있다. 이 글은 책 중에서 부분 발췌했다. 유튜브 '최광선교사의 내래TV'를 운영 중이다.



## 북한 지하교회와 순교자들

-정하민 전도사<sup>2</sup>

북한을 탈출해 먹을 것을 구하면서 방향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북한에 자기 목숨을 주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듯이, 초대 사도들이 그리 했듯이, 그들도 북한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복송 후 당당하게 순교자의 길을 가신 정용철 성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순교자입니다. 아버지는 탈북 후 중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꽃제비 시절 중국 장춘역에서 강제 복송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복송당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셨고, 그길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1년 여 간 고문을 당한 후 순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1962년 8월 25일 함경북도 온성에서 태어나 1999년 8월 26일 탈북했습니다. 아래 편지는 아버지가 세례 받은 직후 친필로 쓴 것으로, 남은 삶을 복음의 사명자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 광 선교사의 3기 사역훈련을 받고 북한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2001년 7월 복송당해 1년 동안 고문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다 2002년 6월 순교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2003년 6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만남**



2000년 4월 정용철 선교사가 김의환 당시 총회신학대학교 총장께 세례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 정하민

2 여명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2019)와 신대원 졸업(2022) 후 노원 한나라은혜교회 교육전도사(2017~2021)를 거쳐 현재 영락교회 북한선교부/자유인예배부 전도사이다.

## 정용철 성도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멀고도 가까운, 가까우면서 멀고 먼 남녘, 한나라 한지맥으로 잇닿은 가고 싶은 한라산과 제주도... 북녘의 동포들을 대신하여 타향의 이국만리에서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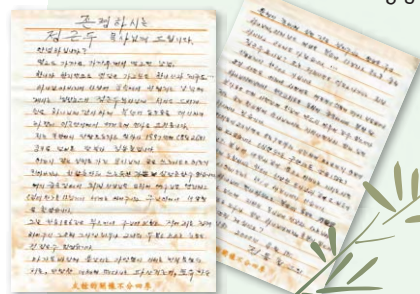
여기 중국 땅에서 최광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김의환 목사님께서 세례를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날 찬송186장을 부르면서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정결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고마워 두 볼로 흐르는 눈물을 건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가랑잎의 신세를 면치 못했던 저를, 망망한 대해에 떠다니는 파산직전의 표류하던 운명의 쪽배에 실린 저를 불러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남은 여생을 복음의 사명자로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큰 마음을 다졌습니다...

만드시 하나님의 렵사하심으로 복음의 통일은 기필코 이루어 지리라 믿으며 귀하신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과 교회의 여러 성도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으며 안녕히 계십시오.

2000년 4월 15일  
정용철 드림.



## 복음 통일을 바라는 기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

우리 주님이 이 민족을 더욱 더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과 북이 냉전상태에 있고 서로를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북이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각종 대형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악한 계획들이 허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셔서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통일을 이룰 수 있기까지는 연약한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계환 은퇴장로  
용인·화성교구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위하여 불의와 싸우다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들의 정의를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순국선열들의 죽음으로 물려받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고자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에 앞장서는 자세를 갖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직과 겸손, 온유함의 품성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다윗 같은 용맹을, 모세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휴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젊은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군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군종 목사님들과 섬기는 종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 복음통일을 위하여 한국 교회와 영락교회의 성도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잘 받들어 주님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신실한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남**



# 지뢰로 날아간 왼발 주님 뜻 알기 전까진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2017년 ROTC 하계 훈련 중, 이종명 전 국회의원의 간증을 들었다. 이분은 지뢰를 밟은 순간에도 부하들을 먼저 챙기셨다고 한다. 이 간증을 듣고 '나는 지뢰를 밟았을 때 부하들을 먼저 챙길 수 있을까?' 생각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군 생활 목표는 내 부하들을 안전하게 전역시키는 것으로 정했다.



부상당한 발을 프로필 사진으로 찍었다

##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공포

2019년 8월 김포 전방 경계 작전 중 지뢰를 밟았다. “짱” 소리와 함께 몸이 붕 뜬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블랙아웃에 이어 “빠”하는 이명이 귀에서 울렸다. 통증이 없는 왼발을 보니 폭발로 인해 절반 정도 발이 없는 상태였다. 그 순간 “으악!” 소리 질렀다.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공포가 나를 덮치는 느낌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지뢰가 추가로 있을 수도 있어 대원들이 구하러 들어오려는 것을 막고, 걸어왔던 길

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해 혼자 기어갔다. 그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받았다.

다음 날, 마취에서 깨어나고 왼발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발가락의 감각을 느낄 수는 있었다. 그러나 발이 잘린 고통보다도 더 괴로웠던 것은 앞으로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공포였다. 중환자실은 하루 두 번의 면회가 허용되는데, 누군가 면회 온 시간 동안에는 내 감정을 감춰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 어느 날,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면회 왔을 때 “부대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다. 경계 작전에 집중하느라 바쁜 부대에 내가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중대장은 소대원들과 중대원들이 쓴 편지를 주고 갔다. 그날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또한 편지를 읽으니 용기가 나고, 빨리 회복



해서 소대원들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6개월 후 수술과 재활을 거쳐 부대로 복귀했다.

### 전역 후 부상 군인 돕는 삶

복귀 후 약 2년 동안, 추가로 군 복무를 했다. 복무기간에 부상당한 동료들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부족함도 보였다. 군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나처럼 다친 군인들에게 부족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다(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몰랐다). 그래서 전역을 결심하고 2022년 3월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군 복무 중 다친 군인들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 군인 상담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를 개소한 후 복무 중 다친 수백 명의 군인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각 군부대를 돌며 강연하며 11월에는 <청년 부상제대 군인 상담센터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주변의 많은 사람 덕분에 이뤄낸 성과였지만, 당시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했다.

### 하나님 귀한 쓰임에 감사

올해 1, 2월에는 행정 처리 문제로 일을 쉴 수 있었다. 2018년 임관 후 쉬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달콤한 휴식이었다. 쉬는 기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벽기도와 모든 예배에 참석해보자고 생각했다. 2022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크리스천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궁금했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기도과 예배를 통해 작년에 내가 이룬 성과는



가운데 검정 상의를 입은 사람이 필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다. 나처럼 능력 없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 주신 결과, 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어렸을 적 나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지만, 돈을 바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이뤄주실 것 같아 돈을 벌어 남들을 돕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리로 기도했다. 그런데 남들을 돕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기도를 지금 응답하신 것 같다. 군 생활에서 소대원의 무사한 전역을 목표로 삼았던 내가 다짐으로써 부하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은 나처럼 다친 군인들을 돕는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토록 귀중히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저처럼 다친 군인들을 돕는 것이 제 삶의 목적 중 하나라면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주세요. 제가 그 길을 벗어나 있다면, 지뢰를 밟았을 때보다 조금 더 아프게 저를 치시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만남**

# 통독하며 하나님의 힘 깨달아

## 청년부 제자훈련 토요성경산책-구약반



성경제자훈련 중 구약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배우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앞서 작년 말에 부서 성경 통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통독은 특히 구약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을 한번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아쉬운 마음을 달랠던 터라 참 반가웠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죄를 지어 큰 벌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대다수 정탐꾼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하여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며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는 게 낫다고 말하며 불순종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을 약속 하셨는데 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깨닫게 되면서, 그 상황으로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과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말씀을 삶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도 생겼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랐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순응하지 못하고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 내가 늘 네 곁에 있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며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걱정과 근심의 모습을 보일 때,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니까요. **만남**



# 소그룹 덕분에 주님 더 깊이 알게 돼

## 청년부 제자훈련 토요성경산책-신약반



청년부 예배 시간에 '제자훈련 토요 성경반' 광고를 접하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신약반 수업을 진행하셨던 신민재 전도사님은 수업 시간 외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권하셨고, 소그룹을 정해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게는 이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성경통독 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빼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찰나, 전도사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성경을 읽을지를 한 명씩 구체적으로 선포하라고 하셨고, 첫날 저의 선포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참도전이 되는 8주가 되었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쉽지 않았겠지만, 삼겹줄로 묶인 소그룹의 도움과 은혜로 성경 읽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전체 카톡방에 매일 지리적 정보를 공유해주셨고, 매일 아침 성경 통독 진도를 알려주고 격려해주신 조장님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조원분들이 있었기에 8주간 도전을 은혜로 마치고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 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머무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무게, 성령의 충만, 그리고 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다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참된 복된 소식, 굿 뉴스'로 다가왔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나의 신분에 관해 묵상할 때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흠뻑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예, 주님"으로 화답하며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사명에 대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으로 경험하며 예수님을 더 넓게, 더 깊게 알아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시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스토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남**



김주안 성도  
청년부 주는나무

# 시간 날 때 번개 러닝, 주님과 함께 달려요

청년부 소모임/ 영락러닝크루(Y.R.C)



러닝부 팀장, 부팀장이라고 해서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달리기를 좋아해서 꾸준히 달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테니스나 클라이밍 등 운동부서가 생기자, 누군가 달리기 모임도 만들어 주길 바라던 중 9개월쯤 지나 '그 누군가가 나인가 보다' 싶어서 달리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팀장은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즐겁게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 달리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소소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서를 허락받기 위한 기획서부터 색달랐습니다. 부서의 목적으로 '전도나 봉사' 같은 거룩한 사명이 요구되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부의 기획서를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 누적 200km 주파... 노방전도 동참

그렇게 시작한 후, 정말 신기하게 전도나 사랑의 목표에 관해 생각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막상 큰 목표를 세우니 말만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공식기록 100km를 달릴 때마다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200km를 달성하고 나서 노숙자들에게 전도 물품 나누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몰랐지만, 교회 안에는 사회에서 사랑을 조용히 실천하고 계시는 멋진 분들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보람되고 감사한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 친구와 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





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 운동이면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승부를 펼칠 필요도 없고, 크게 신체적으로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달리기를 시작하면 곧바로 대화가 잠시 중단되는데 각자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영역을 만들어주지만 달리기가 끝나면, 묘하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죠.

### 청년들 교회공동체 안착 통로 되었으면...

이런 달리기 모임이 공동체에 처음 들어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할 때마다 게스트로 참여하셔도 괜찮아요. 가끔 팀장/부팀장이다 보니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만나서 잠깐 기도한 후, 달리기를 시작하고, 파워에이드를 손에 들고 바로 헤어집니다. 아쉬운 듯 헤어지고 서로에게 시간을 주면서 서서히 친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이 괜찮지 않나요?

저는 한때 공동체 생활에 피곤함을 느껴서 주님을 잠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공동체가 나의 신앙에 필요한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소속감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으니, 결국은 다시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글을 쓰는 저도 왜 함께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계속 찾아가는 중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방향하는 모든 이가 그 길 위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떠났던 저를 다시 찾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달리는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영락러닝크루'는 앞으로도 다른 이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도 주님의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달려나갈 것입니다. **만남**

영락러닝크루 공식 인스타 : @youngnak.running.crew  
 팀장 연락처 : 청년부 예배 주보 참조



이윤진·박성욱 성도 \_ 청년부 꿈꾸는땅 영락러닝크루 팀장 / 부팀장



## 부모가 중보기도할 때 자녀는 ‘공부 영적전쟁’ 승리

현장에서 학생들이 가르쳐보니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 사단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공격

크리스천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성장하여 사회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므로, 사단은 자기 사역의 방해자가 될 학생의 싹을 애초에 자르려고 그들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선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공격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그들의 생각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보를 가득 집어넣고 집중력을 약하게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책을 열심히 보면 뭐 합니까?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이 짧는데,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한 시간의 공부 시간 중 실제의 집중 시간은 평

균 3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네 시간 동안 공부할 때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은 두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부모가 매일 한 시간씩 기도드려야

그러므로 자녀가 공부하는 시간에 부모님이 지속해서 기도하며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집중력과 인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안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부모가 기도

로 도우면 학교에 있는 자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깔끔하고 명료해야, 새로운 지식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향해 정진하며 기도할 때, 부모들은 대적하는 기도로 자녀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서 홀로 싸우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원했던 것처럼, 부모도 기도로 아이들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도전과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2시간 3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고 30분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 중보기도자 많을수록 효과 더 커

우리 아이들은 온종일 많은 도전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압박, 친구들과의 관계, 신체적 피로감, 다양한 유혹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에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기도하길 기다리며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12\_쉬운성경)

기도를 잊지 않으려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오 50분부터 1시까지를 아이들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참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중보기도자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남**



차길영 권사  
수학싸부, 세븐에듀.  
미션수학 대표  
선한목자교회

# 교회가 공기처럼 스며들게... 대를 이어 배워가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는 아이가 가족주일에 단상에 나와서 하고 싶은 기도라고, 한 글자씩 눌러 쓴 기도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기도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곧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잘 살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이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7살의 집중력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고, 모른다고 대충 대답하고는 놀이하러 휩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게 해달라’ 기도문의 완성은 엄마와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점점 기도문을 완성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지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할아버지가 작성한 기도문을 보여주니, ‘공경’과 ‘사명’이 무엇인지 한바탕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바탕이 되어 기도문을 썼습니다. 지난 5월 14일 가족주일에 영광스럽게도 저와 친정아버지, 딸 셋이 3대 가족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저도 7살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기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부모님의 기도를 듣다 보니, 기도는 자연스럽게 저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저는 어릴 때 매우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이니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꼭 잘해야 한다는 조건은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으면 학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



조한아 성도  
서대문·은평교구

##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저 욕심은 내려 놓겠습니다



5월 14일 가족주일 3부예배에서 기도하고 있는 3대. 사진 왼쪽부터 필자, 딸 양윤서(유치부), 아버지 조용철 장로

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쩌다 한번 교회

에 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 온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가다 보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아이가 지금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손을 모아야 하는지 등의 간단한 것만 궁금해하지만, 언젠가는 자신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런 날이 오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을 먹일지, 어떻게 재울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 아이가 7살이 되니까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아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를 보면 걱정과 불안이 커져만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처럼 기도에 힘을 얻곤 합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저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주님만 아시겠지요. 저희는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저를 위해 여전히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연약하여 흔들리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 배운 믿음을 아이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이도 지난 가족주일의 기도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물동이를 내려 놓으라”  
천둥처럼 들려온 말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부터 가슴을 지나 머리까지 벅차오르는 힘을 느끼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집안일, 학교 업무, 다양한 공부 모임을 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나의 상징이자 자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에 백신을 맞은 후로는 매주 아이들과 함께하던 생생이 배틀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면역기능도 약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23년 2월 15일 흉선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올해의 목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상담부 전도사님께서 3월 18일부터 시작하는 <마더와이즈> 참여를 권유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예'하고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었음을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 그리고 조원들과의 교제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된 상담부의 <마더와이즈> 모임은 말씀 묵상, 중보기도, 멘토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내 몸,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자존감도 낮아졌었는데, 이제는 조율되는 경험을 매일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복』 교재를 통한 매일의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 소그룹 모임의 꽃인 중보기도는 성령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교사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휴직을 고려해보”라는 말들을 들었던 학급 문제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한 것뿐인데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리더들과 <마더와이즈> 소그룹 팀원들의 중보기도는 문제를 넘어서 관계를 회

복시키는 힘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모임인 '여성으로서의 나의 회복'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우물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안에는 크고 작은 물동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떤 물동이는 나 자신이라고 여기며 붙들고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물동이들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재적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6주간의 마더와이즈 과정을 마치고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은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으로 거듭나는 길을 찾았으니, 다른 길을 찾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더와이즈 3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만남**

김현희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 별이 빛나는 초소...쉽 있었네



최진희 권사  
서초교구  
영락미술인선교회 회장

칠흑 같은 초소에서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으로 아름다운 밤하늘을 표현했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짙고 푸른 밤하늘에 별들을 둘러싼 기운들이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작은 언덕 아래에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마을 중심에는 작은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는 큰 사이프러스 나무 두 그루가 보초처럼 서 있습니다. 고흐는 가난한 탄광의 전도사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주의 신비로운 기운과 함께 소용돌이치는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병들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작성하고 핸드폰 사진기 렌즈에 검은색 스티커를 붙인 후, 군부대 안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영락 미술인 선교회는 이곳에서 장병들과 함께 연합그림을 제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활동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상기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병들과 함께하는 미술 작업으로,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준비했습니다. 연합그림 활동이란 교회 건물이나 교인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확대하여 28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4호 크기의 작은 캔버스에 밑그림을 그려주고, 각각의 부분을 아크릴 물감으로 채워서 완성합니다. 이후, 작업물들을 하나로 조합하여 액자를 만들고, 교회에 설치하는 특별한 활동입니다.

### 고흐 ‘별이 빛나는 밤’ 밑그림에 장병들 생각한 그림 자유롭게 넣어

군중 목사가 묘사하는 초소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앞쪽 골짜기에는 푸른 나무를 풍성하게 그려 넣고, 하늘을 더 밝고 푸르게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쏟아져 흐를 것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전방을 지키기 위해 밤새 애쓰는 장병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의논하여 고흐의 작품과 감시초소를 함께 그리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고, 작은 마을 교회 대신 군부대교회를 그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장병들이 근무하는 감시초소를 그려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화선교 황재영 목사님과 봉사자 회원들은 이 작업을 통해 긴장하고 굳어진 장병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치유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

에 관해 더 알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 작업은 군부대교회에서 30~40분 더 전방으로 이동하여 작은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장병 33명이 줄을 서서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대견하고 듩직하면서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캔버스가 모자라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두 명이 함께 작업하며 붓을 나누어 칠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망연자실하던 장병들도 일단 붓질을 시작하면서 개성적이고 독특한 터치와 색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크릴 작업은 처음이라는 장병도 있었고, 1시간 동안 귀가 빨개지도록 열심히 작업에 몰두하는 장병도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다음에도 미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한 장병은 밑그림에는 없지만, 본인이 초소에서 보았다는





작은 여우 두 마리를 그려 넣어 그림에 독특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고흐 작품을 밑그림으로 사용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 캔버스 조각 맞춰가며 치유의 시간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번호 순서대로 그림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큰 그림으로 맞춰가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장병들의 모습을 보며,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장병들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회에 대해 밝고 긍정적인 느낌이 들게 된 것 같아,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작업을 통해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소대장님도 장병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미술 작업의 긍정적 효과에 놀라셨고, 목사님도 장병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대 위문사역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하

셨습니다. 또한, 휴가를 내어 장시간 운전하신 조성휴 선교부 문화차장 집사님과 이민하 기획팀장님, 그리고 과일 컵과 계란을 손수 준비하고 사진 분할작업과 미술지도 봉사에 참여한 영락미술인선교회 회원 모두가 즐거워하는 장병들의 표정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가 있었기에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이 소중한 경험을 많은 성도와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의 활동 기회가 더 있을 예정이며, 이 연합그림 사역을 통해 장병들이 회복 치유되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 청년층 빚 고민…성경에 ‘답’ 있다

저는 2008년 5월에 <한국크라운재정사역>을 설립하고 15년간 성경을 통해 보는 돈과 물질에 대한 관점과 돈을 벌고 쓰는 성경적 재정운동과 경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돈 관리 방법에 대한 훈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약 1만 명의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양육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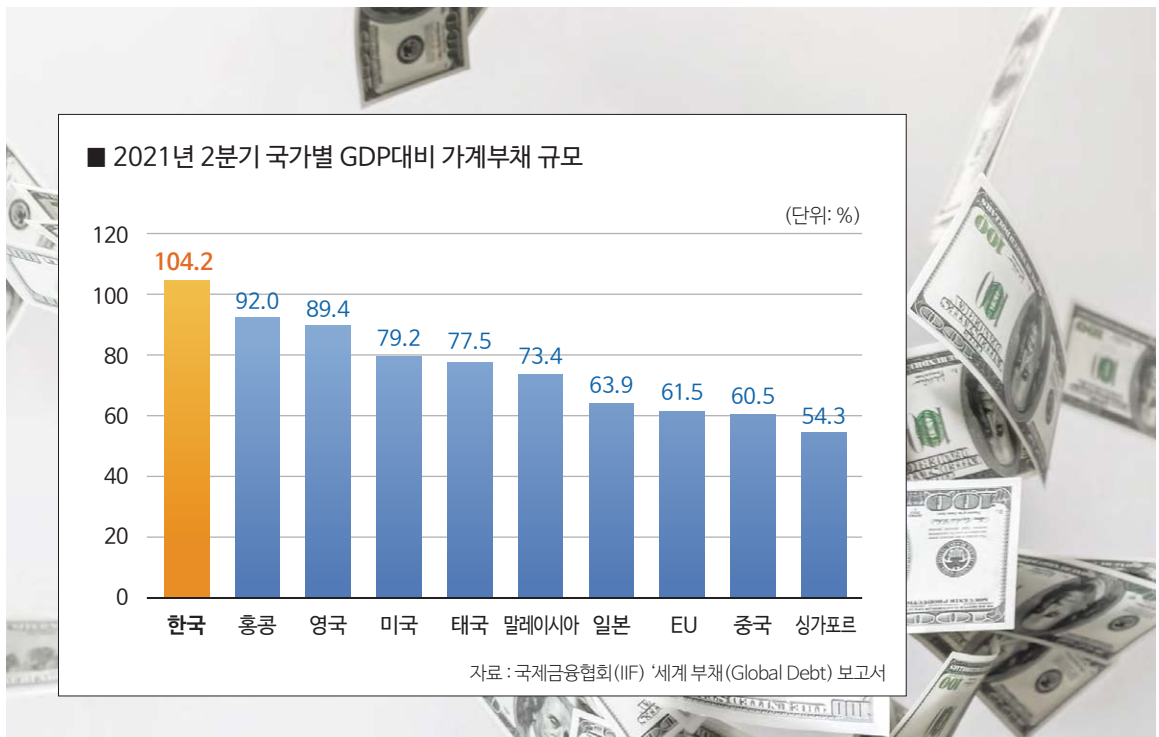
이런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빚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빚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의 부채 규모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총 485조 7,900억원에 달해, 전체 가계부채 1,805조 9,000억원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는 “영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추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성경은 “빚지지 말라”…빚 주는 사람의 종이되면 하나님의 증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

빚 문제 해결을 제안하기 전에, 성경은 빚에 대해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빚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지지 않고, 빚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언 22:7)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로마서 13:8), 그리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린도전서 7:23)입니다. 이런 말씀의 일관된 관점은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며, 그 이유는 빚을 질 경우 빚 주는 사람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진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신명기 28:43~45)가 있습니다. 이는 빚은 말씀대로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 즉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 빚 갚는 원리 제1덕목은 절박함

성경은 또한 열왕기하 4:1~7에서 과부와 한 종지 기름의 예화를 통해 ‘빚을 갚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과부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아이들마저 노예로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빚에 대한 관점은 이 과부의 관점과 매우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는 것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빚을 잘 활용하면 더 빨리,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 논리에 빠져, 빚 갚기를 포기하고 빚 주는 사람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 둘째 ‘얼마나 많은 빚을 진 것인지, 그리고 왜 그 빚을 진 것인지를 파악한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빚 갚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자녀들도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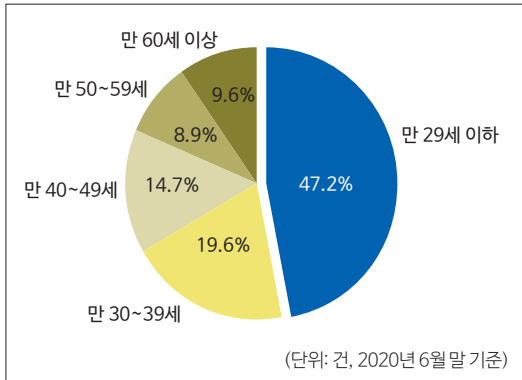
- 셋째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먼저 빚 갚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을 팔거나 축소하여 빚 갚는데 사용하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즐길 건 다 즐기고 소비하면서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넷째 ‘빚 갚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입니다. 빚의 크기가 너무 커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해서 계획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원이 있어 한 달에 100만원씩 갚는다고 계획했다면 8년 4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 갚기가 어렵다고 느껴져서 빚 갚기를 포기하고 이자만 내려고 한다면, 평생 빚을 갚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빚 갚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위에 언급한 원리들을 실천하면, 성경 속 과부가 경험한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부가 가진 기름 한 종지가 모든 항아리를 채우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도 남아 자녀들과 살아가는 충분한 자금이 생기는 것과 같은 기적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서 행동할 때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며,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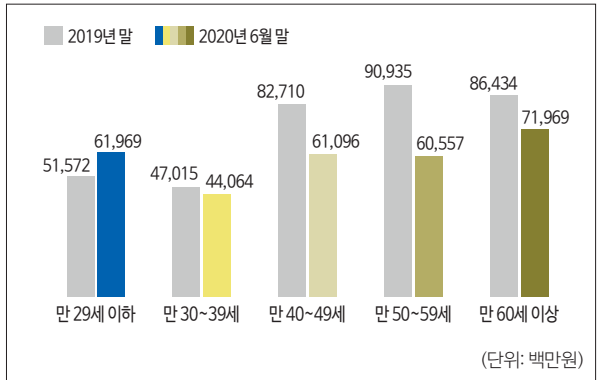
### 청년 부채문제 해결 교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국 가구당 평균부채가 8천만원이라는 정부 통계를 보면,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재정 원칙과 경제 원칙에 따르지 않아, 마치 빚 주는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는 슬픈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반

■ 연령대별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비율



■ 연령대별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 추이



(자료: 장혜영 의원실)

한 경제와 금융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청년들의 빚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청년들이 돈 많은 사람이 되려는 탐욕에 이끌려 큰 빚을 지게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약한 청년들의 빚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20대 빚 연체자의 평균 빚은 1,5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5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3만 5,200여명(42%)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소액의 대출금도 갚지 못해 사회생활 초반에 빚 연체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하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몰린 청년들이 주로 찾는 곳은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입니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아예 20대 청년으로, 전체 고객 중 47.2%를 차지하며, 30대가 19.6%를 차지합니다. 즉, 청년 고객이 전체 고객의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잔액도 20대 청년층에서만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부채 증가 추세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채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기독교 단체 <(사)청년의 뜰>에서는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청년미래은행>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몇몇 교회, 기독교 NGO, 그리고 일반 기업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위의 많은 빛진 자들과 빛진 가정에는 복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만남**



신이철 안수집사  
성남·분당교구  
청년부 멘토  
성경적 경제원리 교육

# 너는 누구의 벗이 돼주었느냐

우리는 삶의 여러 환경에서 선택해야 하며,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선택들이 모여 나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신 아버지와 독실한 신앙인이신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는 제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 고교 시절 집단 괴롭힘 말리다가 겉모습만 챙기던 나를 봤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사춘기의 열정과 감정을 함께 겪었지만, 고등학교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직 어리고 순진한 느낌이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설피지만, 각자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서 같은 생각과 가치를 실천하는 친구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다양한 친구들과 두루두루 어울렸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반 안에서도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중간역할을 맡아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교실 안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끼리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그룹에만 속하지 않고 여러 그룹과 모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반에서 '잘나가는' 그룹과 '소외된' 그룹이 명확히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소외된 친구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완전히 섞여 지내는 것보다는 한걸음 간격을 유지하며 지냈지만, 점점 그들과 많은 부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잘나가는 그룹의 친구들이 소외된 그룹의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점점 과격해지고, 그들은 괜한 화풀이를 소외된 친구들에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여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서 중재하고, 소외된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중간역할로서 좋은 선



최원석 전도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전도부(주중사역)

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함께하는 시간에는 잘나가는 친구들과만 있던 저의 선택과 소외된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만 나서는 저의 선택은 실로 ‘회색시대’였습니다. 소외된 친구들로서는 잠시나마 고마울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같은 무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겉보기에는 좋은 위치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선택한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챙기며, 적당한 호의와 역할을 맡으며 사는 ‘종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답은 내가 선택한 순간들이 모두 “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선택할 때는 자기 이익과 위치, 필요한 것을 따져서 행동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장 낮은 곳 오신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 편에서는 삶 다짐

그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답은 너무도 분명해서 어떠한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도와주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밀려온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게 되는 그날, 예수님이 내게 “너는 누구의 벗이었느냐?”라고 물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세상의 강력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

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웠지만, 때로는 외로웠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진 자들의 벗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서 소외된 친구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자 잘나가던 무리의 친구들이 점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왜 그들과 함께하는 거야? 왜 네가 앞장서는 거야?”라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작은 다툼도 생겼습니다. 소외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명예가 있는 곳이 아니었고, 어렵고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커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을 자신 있게 마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은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소외된 친구들을 그늘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게 했습니다.

궁전이나 권력자들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아와 객, 과부, 소외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세상에서의 선택을 고민할 때, 나는 학창 시절의 경험 이후로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길에 세우시기 위하여, 제가 낮은 곳을 선택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도록 저의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을 소망합니다. 이 길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선택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주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Always, CoramDeo”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만남**

# 다음세대·3040Acts 함께한 전세대 가족운동회



지난 5월 20일(토) 대광고등학교 교정에서 영락가족 운동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예전의 남선교회 연합 체육대회를 올해부터는 영락 가족운동회로 변경하여 다음세대 3040Acts(MZ 세대)가 함께하는 전세대 가족운동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초대한 사랑부, 자유인예배부, 외국인예배부 총 800여 명이 참여하여 운동을 통한 심신단련을 하며 즐거운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운동회는 모세팀과 다윗팀으로 구성하여 연합게임 '박터트리기'를 시작으로 장년그룹, 3040Acts그룹, 초대그룹이 청백전으로 대항했다. 최종 우승은 다윗팀에게 돌아가는 등 풍성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사진 박상수·원종석·유승현







어른들은 족구하고



경품 당첨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난타는 사랑을 싣고!



딱지치기. 뒤집어래! 똑딱



일심동체 공나르기!



사랑부 사랑해요♡

## 우선주차제 6개월…입차대기줄 사라져

작년 11월 둘째 주일부터 시행한 ‘우선주차제도’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제도 준비부터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과 ‘우선주차제도’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288개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인 수와 등록된 차량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로, 주말마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교회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 교인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성도들이나, 새벽 이른 시간에 교회에 오거나, 물건을 들고 오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어린이, 어르신, 장애인)을 동반해야 할 경우는 자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차량만 해도 우리 교회의 주차장은 항상 부족합니다.

### 교통약자들에게 주차공간 양보

그래서 주차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차량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도 ‘2시간 주차 캠페인’, ‘제직자 외부 주차장 이용 캠페인’ 등을 통해 주차장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관리가 잠시 중단되었고,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2022년부터 다시 주차장 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차장에 자리만 있으면 누구나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찍 오거나 오래 기다리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시간 주차 차량이 많아 주차장의 순차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는 대기하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수백 미터 긴 줄을 이루며 교회 주변 도로를 막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에서, 교회 주변의 교통 체증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지는 것은 가장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이동이 힘든 분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이 힘든 분을 동반하는 차량은 순차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거동의 불편을 감수하고자라도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대면예배를 포기하는 예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새로운 주차관리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용하던 주차공간을 나보다 더 필요한 다른 이에게 양보하는 것이 새로운 주차제도의 취지입니다. ‘나는 외부 주차장에 주차한 후 교회까지 걸어가는 것에 큰 불편함이 없으니, 나보다 이동이 힘든 성도들에게 주차공간을 양보하겠다’라는 배려가 우선주차제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죠.



김기선 안수집사  
동대문·중앙교구  
자원봉사부 차장

## 우선주차란?

주일 프라임 타임에 우선주차 대상자에게 교회주차를 배려하는 것

### 1. 주일 주차장 운영 (주일에 한함)

- 프라임타임: 08:00~13:00(가장 붐비는 시간)
- 프라임타임 입차 방법: 우선주차증 + 대상자 탑승여부 확인 후 입차 가능
- 1부예배 차량: 예배 시작 전까지는 모든 차량 입차 가능(예배 직후 출차 원칙)
- 주일 주차시간: 입차 후 2시간까지 (우선주차 차량 포함)

### 2. 우선주차증(교회 차량등록 스티커와는 별도)

- 발급 절차: 우선주차 신청서에 소속부서 확인을 거친 후 행정처 발행
- 유효기간: 1년 (1년마다 갱신) (새가족은 3개월)
- 임시주차증: 일시적인 사유로 주차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부에 신청,  
심의 후 임시주차증 발행 가능

### 3. 우선주차대상

대상	세부 기준	주차장 입차시 확인사항
어르신	만 80세 이상 본인 운전, 동승차량	우선주차증(흰색) + 어르신 운전/동승
어린이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 동반차량	우선주차증(분홍색) + 어린이 동승
장애인	(지체장애) 정부발행 주차가능 스티커 부착차량 (발달장애) 사랑부 소속 - 우선주차증 소지차량	노란스티커(본인운전)-별도확인 없음 흰스티커(가족운전)-동승 확인 발달장애-우선주차증+대상자 동승
새가족	새가족부에 접수한 새가족	우선주차증(노란색)-유효기간 확인
임산부	임산부 표지 소지자	임산부 표지(핑크 뱃지)

- 행사 차량: 교회 각 부서의 공식행사 차량의 경우는 행사내용, 차량번호, 주차시간을 기재하여 사전신청하면 주차장 입차 가능

## “불편 기꺼이 감내한 성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주차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점은 ‘과연 성도들이 이 제도를 잘 받아들일까?’ ‘이 제도가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도를 도입하니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제도에 동

참하셨습니다.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1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차 차량이 기대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양보’와 ‘협조’가 성공적 제도 정착의 열쇠였습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배려해주시는 성도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두 가지 목표가 기대 이상으로 훌륭

하게 달성되었습니다. 첫째로, 교회 주변(삼일대로) 도로의 차량흐름 방해 문제는, 주차 대기줄이 사라지면서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둘째로,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한 우선주차증이 700매 이상 발급되어 대부분이 대기 없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시간의 단축과 장기 주차 감소 등의 추가적인 효과로 전체 주차량이 10% 이상 증가해, 현재 900대 이상의 차량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성도와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장기 주차 문제가 해소되면 100대 이상의 차량을 더 수용할 여유가 생기게 되어, 그만큼 더 많은 부분을 '다음세대'를 위한 배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봉사하는 분들 배려해야

처음부터 우선주차제도는 교회의 '다음세대'를 배려하고 교회 성장을 돕자는 비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로 어린이와 젊은 부모들이 이 혜택을 받아, 더 많은 어린이가 교회 뜰에서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젊은 부모들이 교회 활동에 더욱 참여하도록 하여, 가깝고도 먼 미래의 교회를 지향하는 소망이 그 기반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우선주차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

대했고, 오후 1시 반까지 적용했던 프라이마임을 1시까지로 30분 단축하여, 청년들의 예배 참석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해도, 한정된 공간에서 모든 성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과거, 현재, 미래 세대로 나누어 본다면, 이 제도는 어르신, 어린이, 젊은 부부,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현재'를 책임지고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여러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양보와 배려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 이분들을 향한 배려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주차관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회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생기는 여유 공간을 '과거'와 '미래' 세대에게 돌려주고, 교회 외부의 주차시설을 활용해 '현재' 세대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남**

**영락교회 주일 우선주차 참여 CAMPAIGN**

- 주일 프라운 단원회 교회주차장은 우선 주차대상자에게 배려한다.
- 우선주차자는 다른 성도들의 배려에 감사하고 봉사자의 안내에 협조한다.
- 주일 교회 주차 시간인 2시간을 준수한다.
- 장로, 권사, 인수집사 등 체득 및 공직자들은 교회주변 화안 유료주차장을 적극 이용한다.
-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주차장에서 내 생명의 삶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락교회 | 자원봉사부 TEL. 02-2289-0125

**주일 우선주차 참여 캠페인** P 교회 주변 화안 유료주차장

우선주차란 주일 정해진 시간대(프라운 단원회와 헌도)에 교통약자(우선주차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배려하는 것

프라운 단원 :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5시간)  
우선주차대상자

대상자 :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주차시간 : 입차 후 2시간까지

우선주차자 아닌 일반차량 주차 방법

- 우선 주차 자원이 아닌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는 교회가 마련한 주변 화안 유료주차장 이용
- 주일 주차가 가능한 교회 주변 화안 유료주차장 이용(여도입차)
- 프라운 단원 시간대 아닌 주일 7부 예배, 4부 예배 또는 5부 예배 시간대 교회 주차장 이용

※ 주차료는 주일 오후 4시 50분 이전 복사는 1층 봉헌실에서 구입 (화안예배비닐딩 / 남산스퀘어비닐딩)

**화안 유료주차장**

화안 유료주차장 (주일) : 10,000원 / 2시간  
남산스퀘어비닐딩 (주일) : 4,000원 / 2시간

파인센터타워 (주일) : 5,000원 / 2시간  
대신파이낸스 (주일) : 4,000원 / 2시간

## 구역장으로 세워질 안수집사 첫 훈련



첫 안수집사 구역장 리더십 훈련이 4월 2일부터 16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목양부(부장 정경섭 장로)가 주최하고 안수집사회(회장 강명옥 안수집사)가 주관한 이번 리더십 훈련은 2021년 제45회기 정책 당회에서 ‘안수집사는 구역장 사역을 의무적으로 맡는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81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 주일 2시간씩 한경직기념관 지하에서 열린 훈련 과정은 김운성 위임목사의 격려로 시작되어 ‘영성과 상담’ (박지운 목사), ‘소그룹 전도’ (이창조 목사), ‘리더십과 행정’ (박지운 목사, 김재훈 전도사)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운성 목사는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구역을 통해 성장해온 역사를 언급하며, “시대가 변화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변하면서 구역의 역할도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구역은 교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틀이며 특히 영락교회의 구역들은 교회를 연결하는 망과 같다”고 구역장으로 섬김을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구

역장 리더십 훈련은 특히 구역 내 소그룹 특성화를 강화하는 목회 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리더십 훈련을 수료한 81명 가운데 희망하신 분이 구역장으로 우선 임명됩니다. 이후 부르심의 소명과 구역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사역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1,099개의 구역을 두고 있으며, 구역은 교회의 지체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파견 구역장이 126명 있지만, 아직 17개 구역은 구역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역장들의 직분은 장로가 0.7%, 권사가 86.1%, 집사가 13.2%입니다. 여성이 97.3%이며, 남성은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의 사역 년수는 6년에서 10년 사이가 28.3%이며, 11년에서 15년 사이가 20.4%, 15년 이상인 사람들이 20.1%로 11년 이상 된 분들이 40.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연령은 60대와 70대가 71.5%로, 젊은 구역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번 구역장 리더십 훈련을 통해 안수집사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며, 전도를 통해 교회의 생명력 있는 세포로서 구역 공동체가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만남**



강명옥 안수집사  
교양·파주교구  
안수집사회장



## 내 처방약과 공합 맞는 영양제 뭘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고 많이 들어온 이 말이 어느 순간에 소중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타면 대형사자의 약 광고가 붙어있으며, "당신은 이 약을 아십니까?"라는 문구가 많아서 눈과 귀를 자극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각자 복용하는 약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영양제를 복용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떨 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처방 약을 복용할 때 우리 몸에 부족해지는 미네랄과 비타민은 무엇 일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처방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영양결핍 증상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 혈압약 장복 땀 코큐텐 성분 영양제

고혈압은 심장이 수축하거나 확장할 때 혈압이 정상 수치인 최저혈압 90 mmHg, 최고혈압 140 mmHg을 넘어서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높은 혈압이 지속된다면 심부전, 신부전, 뇌혈관 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은 혈액순환이 적절하게 유지되며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의 병태생리 및 합병증은 다양하므로 치료 방법과 약물 선택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선택은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선택된 약물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2~4주 동안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한 후 변경하거나 2차, 3차 선택 약과 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근육통, 우울증, 심장 질환, 만성 피로, 부정맥, 빈혈 등이 있으며, 이는 약물에 따른 영양소 결핍



**문성미** 권사  
 노원교구  
 의료선교부  
 약사

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종합 영양제에 코큐텐을 포함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고지혈증 약엔 비타민B 복합영양제 효과적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지방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혈관 벽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킴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지질 상태를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이라고 부릅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려면 식사 조절, 운동, 체중유지와 함께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약물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고, 나쁜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좋은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며,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면 혈압상승, 심장 기능 이상, 팔다리 무력감, 말초 신경병증, 빈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큐텐, 비타민B1, 비타민 B9, 비타민 B12, 아연과 같은 영양소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와 코큐텐이 함유된 비타민 B 복합 영양제가 효과적입니다.

### 당뇨약도 코큐텐 포함 신경강화 비타민 섭취 필요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 또는 기능 이상으로 인한 대사질환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생산되지 않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줍니다. 혈당강하제는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하거나 식후 혈당을 낮추는 약,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의 당 흡수 및 이용을 증가시키는 약, 소장에서 당 흡수를 감소시키는 약,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약 등이 있으며 새로운 약으로는 인크레틴 호르몬 분해효소인 DPP-4를 차단해 인슐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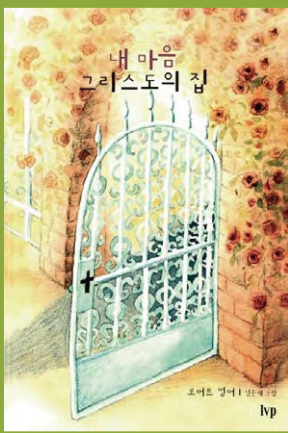
분비를 촉진하는 약과 SGLT-2를 차단해 신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약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복용은 코큐텐, 비타민 B1, B6, B9, B12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초신경병증이 오기 쉬우므로 코큐텐이 포함된 신경 강화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골다공증약은 아연 함유한 종합비타민 좋아

골다공증은 유전적인 요인, 조기 폐경, 스테로이드 약물, 동반 질환, 흡연, 우울, 알코올 섭취, 류머티즘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만 있는 경우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물 치료를 함께 진행하여 골절 위험 감소에 중점을 둡니다. 뼈를 강화하기 위해 1주에 3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평형감을 유지하여 넘어질 가능성을 줄여 골절을 예방합니다. 치료에는 하루에 800~1,000mg의 칼슘과 800단위 이상의 비타민 D를 권장합니다. 여성호르몬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부갑상선 호르몬 등의 약물 치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면역력 저하, 시력 저하, 청각 손실,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해 아연이 함유된 종합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상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여 중복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진료 시에는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부작용 경험, 현재의 증상에 관해 정확히 설명한 후,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또 약을 지을 때는 장기간 복용 약물과 일시적 복용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반드시 약사에게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약국에 가면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했다고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생활 습관과 운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

##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메이어나인 신은재 그림  
IVP 펴냄 2004년

1년의 절반이 채워지고 끝나는 6월, '한 권의 묵상'을 통해 영락의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해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십여 년 전에 이 작은 책을 만났을 때,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항상 삶을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제 2023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기에, '한 권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이 책의 주인공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고, 주인공은 각 방을 소개하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인공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들이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은밀한 곳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집의 모든 곳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 집의 각 방들을 새롭게 정리하기 원하셨고, 모든 곳에서 함께 거하길 원하셨어요. 주인공은 스스로 집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집의 열쇠를 내어드리며 맡겼어요. 이에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들여셨고, 그 집을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집의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되셨어요.

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신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순간순간 망각하고, 내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인생의 집에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집 열쇠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이종실 목사  
중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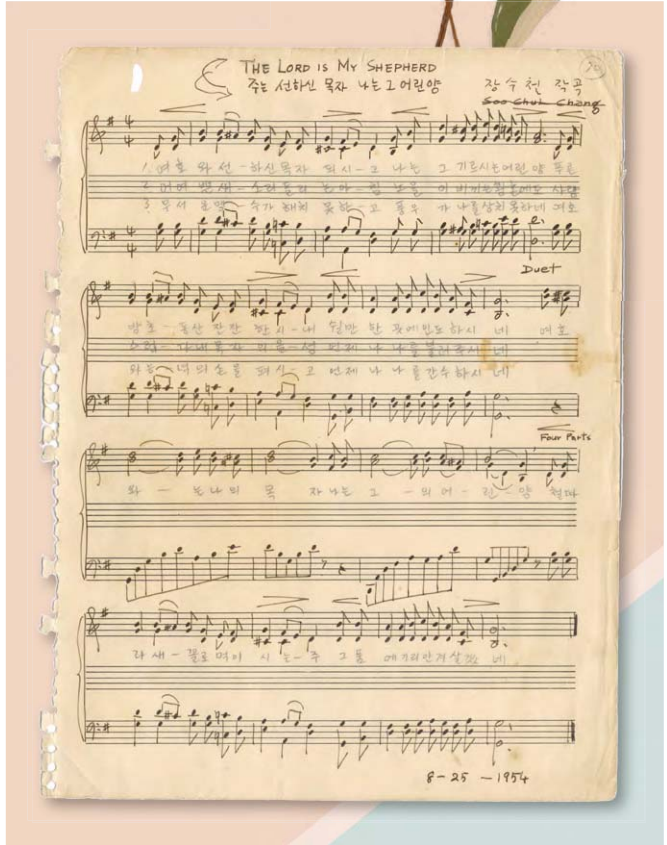
## 주는 선하신 목자



1950년 6월 28일, 한 가족의 어머니가 전하는 이야기이다: 서울에 진입한 공산군이 시내에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 되어서야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공산군의 시선을 피해 마포나루에 도착했다. 기적과 같이 여의도로 넘어가는 작은 보트에 올라 강을 건넜고, 그 와중에 강기슭에서 공산군이 총구를 겨누는 등 위기도 있었으나 보트는 무사히 여의도 백사장에 닿았다. 어머니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sup>1</sup>.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서로의 손을 꼭 쥐어 잡았고 말없이 감격에 찬 눈빛만 오고 갔습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뒤범벅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등포 쪽으로 가기 위해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누가 먼저랄것 없이 모두 목멘 소리로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



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우리는 공산군을 피해 가며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배고픔에 시달린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 23편을

1 최봉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도서출판 웰메이드, 2022. p.195-198.

외우곤 했습니다. 9월 28일. 그이는 수복 후 잿더미로 뿌연 서울에 앓는 애와 네 식구를 셋방에 남겨둔 채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갔습니다. 여비마저 모자라게 지냈습니다. 진정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병중에 있던 딸은 아버지께 마지막 편지를 띄우고 며칠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55년, 유학 중이던 그이는 시편 23편에 곡조를 붙여 보내주셨습니다.

글의 주인공은 최봉춘(1917~1998) 여사, 남편은 장수철(1917~1966) 박사이다. 작곡가 장수철은 평양 태생으로, 1940년 평양요한학교에 다니며 박재훈<sup>2</sup>과 구두회<sup>3</sup>를 만났다. 그들은 한국 교회 음악의 초석을 다지는 “평양요한학교 삼총사”로 불리게 된다. 장수철은 1948년부터는 서울에서 정신여자중·고등학교의 음악 교사로 재직했으며, 동시에 초등학교에 전도사 겸 찬양대 지휘자로 사역했다. 당시에는 매주 목사님의 말씀에 맞춰 찬양곡을 작곡하기도 했다(작품은 6·25 한국동란으로 인해 소실됨). 전쟁 후 1954년에 도미하여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서학교(Moody Bible Institute)와 시카고 아메리칸 뮤직 콘서바토리(Chicago American Music Conservatory)에서 작곡을 공부했다. 1955년 최봉춘 여사가 장녀 혜경이 12세의 나이로 사망한 소식을 보냈는데, 편지에는 시편 23편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1957년 귀국 후, 중앙신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서 전임강사로 재직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강의했다. 1958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교회음악협회를 창립했고, 1960년에는 밥 피어스(Robert Pierce, 1914~1978) 목사와 함께 선명회 어린이합창단(현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여 초대 지휘자로 활동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세계 16개국을 돌며 두 번에 걸쳐 해외 연주 여행을 통해 국위선양을 했다. 당시 전쟁고아로 구성된 선명회 어린이합창단이 만들어내는 천상의 소리는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생명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기적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외침이었다. 이 모든 것은 장수철 박사의 헌신과 뛰어난 음악적인 지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때의 무리한 일정으로 얻은 간경변으로 인해 4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장수철 박사는 150여 곡의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는 최봉춘 여사의 시에 곡을 붙인 〈탄일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등이 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친필 원본 악보<sup>4</sup>에는 1954년 작곡으로 표기되어있는데, 현재의 찬송가 형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장수철 박사가 유학 첫해에 만든 이 찬송은, 큰딸 혜경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한국의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1956년에 최봉춘 여사의 손길을 거쳐 지금의 가사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1967년 개편 찬송가에 수록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시편 23편은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던 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의 통로였고, 어려운

2 박재훈 (1922~2021):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오요〉, 〈어머님 은혜〉 등 작곡

3 구두회 (1921~2018):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등 작곡

4 유가족(셋째 아들 장우형 교수) 제공



1962년 영락교회 지휘시절

| 사진 장수철유족 제공

상황에서도 처자식을 조국에 두고 홀로 유학 생활하던 장수철 박사를 지탱해준 신앙의 고백이었으며, 큰딸을 잃은 부부가 서로에게 건네는 눈물과 소망의 위로였다. 이는 마치 17세기 독일의 <30년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외쳤던 마르틴 린카르트(Martin Rinkart, 1586~1649)의 <다 감사드리세>를 연상시킬 만큼 놀라운 고백의 찬송이라 하겠다.<sup>5</sup> 린카르트 목사가 감사의 조건이 완성되어 감사를 드림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도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아니었을까. 1954년 악보 초본에 있던 가사를 옮겨본다.

### 주는 선하신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1. 여호와 선하신 목자 되시고 나는 그 기르시는 어린양

푸른 방초 동산 잔잔한 시내 실만한 곳에 인도하시네

2. 어여쁜 새소리 들리는 아침 노을이 비끼는 황혼에도

사랑스럽다 내 목자의 음성 언제나 나를 불러주시네

3. 무서운 맹수가 해치 못하고 풍우가 나를 상치 못하네

여호와 능력의 손을 펴시고 언제나 나를 간수하시네

후렴: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 따라 새 풀로 먹이시는 주 그 품에 길이 안겨 살겠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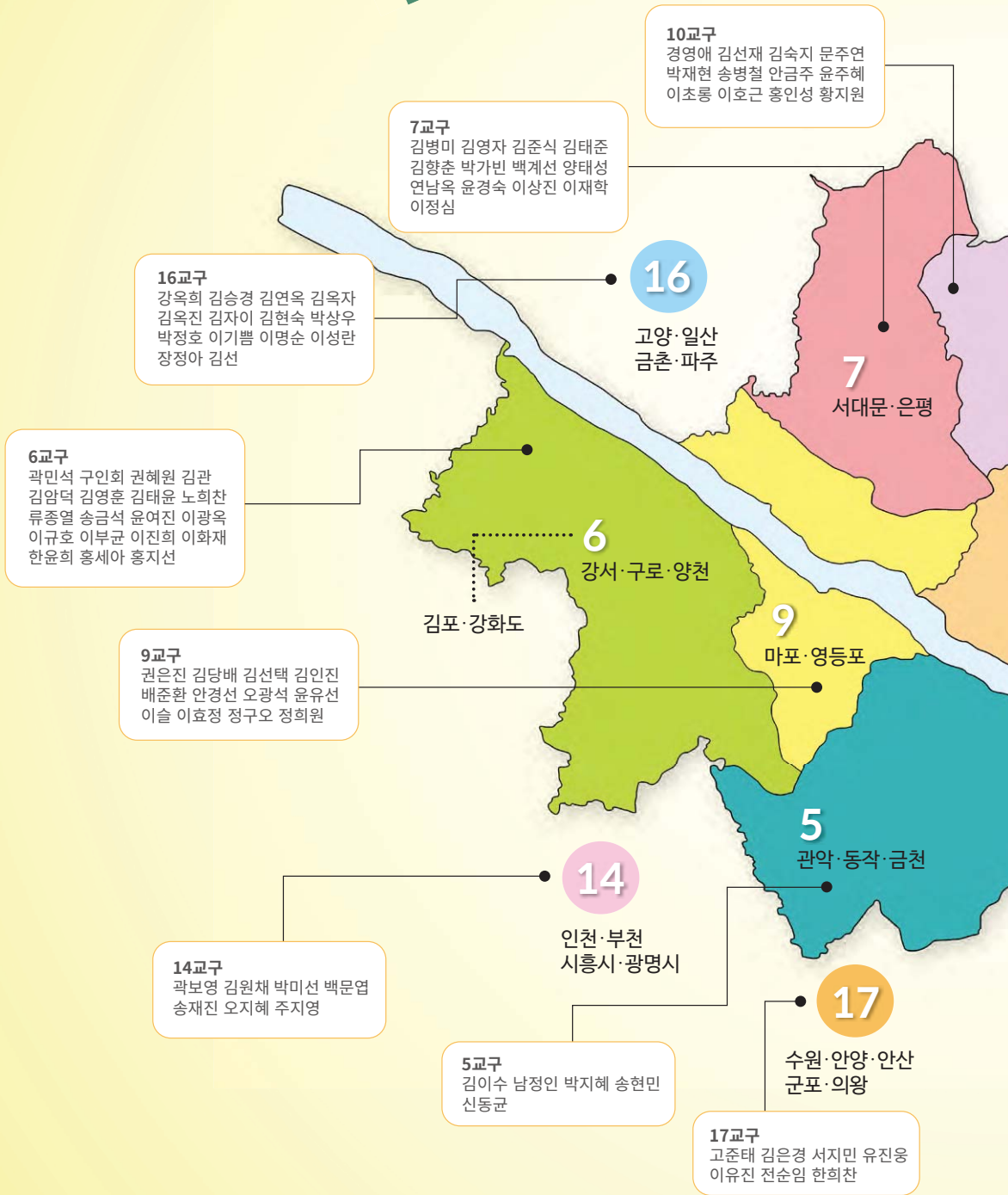
선명회 어린이합창단의  
1961년 1차 해외공연(미국, 캐나다)  
자료 음원과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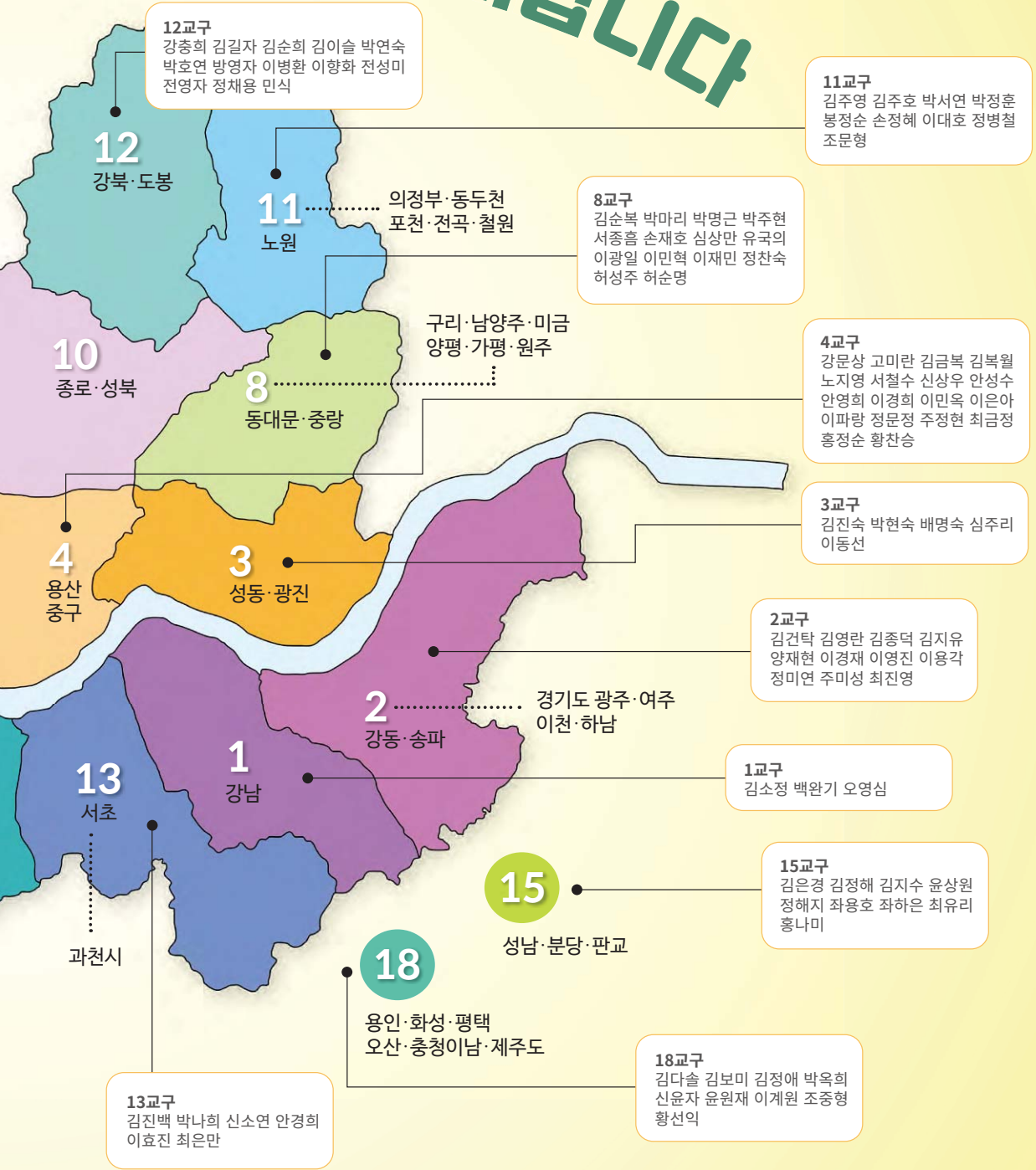
백경진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5 만남 2022. 10월호 성가산책 <노래로 하는 경건의 훈련> 참고

# 주 안에 한가족



# 되심을 기뻐합니다



# | 어린이 주일유아세례 |

## 어린이주일, 50명 영아 유아세례

어린이주일인 지난 5월 7일 찬양예배 시 유아세례식이 치러졌다. 이날 집례를 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세계 1위 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50명이란 숫자는 참으로 저출산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쁨이다”라고, 부모세대의 기도의 열매와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영락의 울타리에서 잘 키울 것을 권면하며 50명의 영아(남아 26명, 여아 24명)에게 세례를 선포하고 부모들은 서약했다.



### 유아세례 명단

성명	성별	교구	구역
강별	여	13	13
강솔	여	13	13
공은상	남	9	36
곽문준	남	16	64
김건우	남	6	67
김규민	남	13	39
김도겸	남	3	23
김승호	남	6	13
김시우	남	10	24
김이든	남	4	98
김재나	여	90	888
김지우	남	10	65
김지호	남	9	27
김하린	여	6	45
민하음	여	10	2
박빛	남	7	5
박선우	남	16	66

성명	성별	교구	구역
박지안	여	18	35
박지후	남	10	26
박하은	여	6	7
반하량	남	8	71
봉민준	남	6	4
선하울	남	90	888
신별하리	여	3	39
신예울	여	10	11
양은우	남	10	4
우하은	여	14	34
이나우	남	3	43
이나윤	여	17	20
이선우	남	6	19
이솔	여	4	46
이예은	여	1	55
이주하	여	16	26
이지아	여	16	2

성명	성별	교구	구역
이지우	여	16	2
이혜빈	여	6	41
임하리	여	4	70
정민기	남	7	63
정민준	남	7	63
정채이	여	4	8
조유담	남	18	13
조유안	여	10	35
채민서	여	9	20
한연재	남	11	31
함태준	남	2	67
호준원	남	8	36
홍나윤	여	2	17
황선우	남	15	41
황유하	여	90	888
Danielle Kim Lay	여	7	47

##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5월 5일(금) 어린이날 유치부(부장 정일형 안수집사)·유아부(부장 김병삼 안수집사) 주관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가 우리 교회 50주년기념관 1~4층 및 베다니홀, 소극장 등에서 열렸다. "바이블 빌리지-뚜벅뚜벅 말씀 따라!"를 주제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한 신앙교육을 실천한 이날 잔치는 베다니홀에서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한 뮤지컬 예배로 시작됐다.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모습과 다시 방주의 문이 열리는 상황을 연출하여,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인물들을 보여주었다. 50주년 기념관 안에 설치된 '바이블 빌리지'에서는 가나안 프

로젝트, 기드온의 기도스쿨, 모세의 말씀이야기, 요셉의 달란트마켓을 주제로 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영·유아·유치부를 맡고 있는 홍지연 목사는 "아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뜰 안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그 시기를 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8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부모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역동적이었다' '참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취재 안하윤 기자

## 은혜의 찬양이 강물처럼 ... ‘브라보 영락쌤’

교육부는 지난 5월 21일(주일) 교육주일을 맞아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특별 행사인 ‘브라보 영락쌤’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교사들이 모여 소통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하며 응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찬양예배는



교육주일 특별예배로 열려서, 교사들이 감사와 헌신을 다짐했다.

지하 2식당에 마련된 ‘브라보 영락쌤’은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김운성 위임목사의 격려 말씀으로 시작했다. 교육부 전담목사인 방덕중 목사와 40년 근속 교사들, 교육부 임원들과 함께(사진) 케익을 자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32명의 교사들이 자유롭게 참석하며 행운권 추첨과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육주일 특별예배에서는 방덕중 목사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여호수아 4:1~9)’이라는 하나님 말

씀으로 설교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과 부모세대가 되기를 강조하며 영적싸움에서의 승리의 흔적과 기념물을 남겨 다음세대를 위한 표적이 되기를 권면했다. 또한 신경애 집사(중등부 교사)는 신입교사로 봉사하게 된 감사와 은혜를 간증하였으며, 10~40년 근속한 46명의 교사들에게 시상했다. 특별히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6개 교회학교 학생들의 연합찬양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물 흐르는 소리 같다”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칭찬처럼 교육주일 헌신예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 2023년 장기근속교사명단

10년 근속	강진영 김경이 김동순 김번어나 김세연 김수연 김오영 김철하 박하연 서영미 양순라 오미숙 오정윤 우정식 이은하 이인희 이재란 이현아 이해원 정연욱 정주일 정혜은 조영경 조영례 조희영 차주원 최경태 최정인 최준호 최창호 최태진 흥현화 황희선 (33명)
20년 근속	강단봉 문혜원 박명자 박진영 배수진 정혜숙 황규임 (7명)
30년 근속	김경숙 김관후 김순혜 이해영 (4명)
40년 근속	임순화 최인옥 (2명)



## 전 세대가 함께한 예배,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가정’



가정의 달 5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가정’을 주제로 5월 14일 주일 2~4부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 주일 예배로 드러졌다. 예배는 기도와 성경봉독, 봉헌송으로 3세대가 함께하여 말아서 진행하였다. 조부모, 외조부모, 엄마, 아빠의 부모세대와 자녀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은 가족주일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함께 내려가세요(누가복음 2:41~52)’의 말씀으로 설교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하나님 함께하여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키워 순종하는 가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축복 받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락의 가정으로 진정한 천국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한편, 베다니광장은 가족들에게 아이스크림과 과자들을 선사(오른쪽 사진)하여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 성도들로 북적북적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중·고등부 연합 ‘영락청소년 육상선수권대회’

중등부(부장 차남수 장로)·고등부(부장 서상현 장로)가 연합하여 주최한 영락청소년 육상선수권대회(이하 영육대)가 5월 7일 토요일 아침에 진행되었다. 이날 체육대회 장소인 영락고등학교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포함 약 450명이 모였다.

이번 영육대는 먼저 실내 강당에서 중·고등부가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육부 임원들의 격려사 및 학생회장들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

다. 총 네 팀으로 나누어진 중·고등부 학생들은 오전에는 큰 공 굴리기, OX 퀴즈, 바구니에 공 넣기 등의 종목으로 겨루었으며, 오후에는 줄다리기, 미션 계주 등을 통해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중간에는 장기자랑 등을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 감추었던 끼를 마음껏 발산했으며, 풍성한 경품 및 선물 증정은 이번 체육대회를 더욱 즐겁고 보람차게 만들었다.

제공 정창대 전도사(고등부)

## 구순·팔순 은퇴안수집사 모시고 축하감사예배



은퇴안수집사회(회장 이운중 은퇴안수집사)는 5월 17일(수) 한경직목사기념관 지하에서 구순·팔순 축하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정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구순을 맞은 이원도 은퇴안수집사와 팔순을 맞은 8분(이용규, 이시정, 윤재명, 주 용, 이근영, 한경호, 신대섭, 김일동) 은퇴안수집사를 모시고 드린 축하자리였

다. 김운성 위임목사의 “남은 삶을 사는 법(베드로전서 4:1~2)’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눈 후, 선물 증정 및 박순태 원로장로의 축하인사, 윤재명 은퇴안수집사의 답례인사, 권사회합창단의 특송, 올드보이즈 하모니카찬양단의 특별연주 등이 이어진 뒤 축하 케익 커팅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이 행사는 생일을 맞은 9분의 감사찬조와 중양여전도회, 남선교회, 권사회 및 베다니회의 후원과 찬조로 이루어졌으며 90여 명의 축하객이 함께한 푸근한 자리였다. 주최 측은 앞으로는 교회 차원에서 축하감사예배가 드려진다면 의미가 더할 것 같다는 소망을 전하였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갈보리찬양대 50주년 기념 ‘솔리스트 야외 음악회’

5월 20일 베다니광장 선교관 앞 계단을 무대로 갈보리 찬양대 50주년 솔리스트 야외음악회가 열렸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토요일 음악회가 이날 특별히 야외음악회로 열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음악회는 교회음악과 낭만음악을 함께 하는 〈A Joyful Celebration of Gratitude〉를 주제로, 찬양대 솔리스트로 섬기는 성악가들이 한껏 기량을 발휘한 무대였다.

소프라노 강은희, 남현주, 최연서, 한나형, 홍세아, 황정희, 테너 이장호, 바리톤 안대현, 허용석(기획) 등 9명.

피아니스트 김은진 대원이 함께 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새로운 곡 연주와 함께 ‘향수’ 등 익숙



한 가곡을 새롭게 재해석한 연주가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순서는 갈보리찬양대 전 대원이 함께 찬양곡 ‘그는(He is)’을 합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취재 인미기자

## 청년 미술인들과 동행...영락미술인선교회 정기전



영락미술인선교회(회장 최진희 권사) 전시회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2023년 5월 17일(수)부터 22일(월)까지 인사동 갤러리인사아트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영락미술인선교회는 시각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미

술인들의 모임으로 40여 명의 회원들이 매년 교회 내·외부에서 정기전을 하며 활발히 전시활동을 하고 재능기부의 사회봉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회화, 서예, 조소, 도예, 디자인, 영상 등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여러 분야의 회원작가들이 주어진 은사를 통해 각자가 경험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화폭과 입체작업에 담았다. 에베소서 말씀의 부르심의 소망을 묵상하며 작품을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미술인 초청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에스터, 김인경, 박열매, 박정근 4명의 귀한 청년미술인이 함께 전시를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제공 영락미술인선교회

## 영락사회복지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홍준 장로)은 5월 17일 (수) 임원과 시설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변화된 환경과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인복지사업, 모자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논의하였다. 필요한 곳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로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소규모요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의 유사한 사역을 통합하고 주력사업을 내실화하여 기관 간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헤븐리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역을 법인이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중심으로 2차에서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보육사업, 법인사무처의 발전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 박재현 목사, 일산동안교회 2대위임목사 위임식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박재현 목사가 지난 4월 30일(주일) 일산동안교회 본당에서 성도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위임목사 위임식을 거행했다. 1부 감사예배는 김경호 목사(평북노회장)의 인도로 이영찬

목사(서시찰장)의 기도, 호산나찬양대의 찬양, 이철신 원로목사가 ‘영적 책임’이란 제하 말씀을 전했다. 2부 위임예식은 김경호 목사(위임국장)의 집례로 김신일 목사(노회서기)가 위임목사 소개, 위임국장의 위임 서약, 기도, 서약, 위임패 증정,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하영상, 권면과 축사에 이어 박재현 위임목사의 감사의 인사, 일산동안교회 원로 김해수 목사가 축도했다.

박목사는 2014년 부임하여 용인·화성교구와 상담부를 시작하여 목회행정과 강남교구 등을 맡아 사역하다 2021년 12월 사임했다.

취재 김경욱 선임기자

##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2023 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23 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이 지난 5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한국 교회의 여러 교단의 목회자 사모들과 선교사 사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치유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다.

여는 예배 시간에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한 맑고 조용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사기라와 엘리사벳과 같이 하루하루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닫는 예배 시간에는 이철신 원로목사가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당부했다.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은 고요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강의를 듣는 침묵 영성수련이다. 참석자들은 "침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다."라며 기회를 제공하고 섬겨주신 영락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제공 영락수련원

## "교육부 전도사님들 감사합니다"... 섬김의 바비큐 파티

교육부는 5월 25일(목) 교역자 섬김의 날을 맞아 우리 교회 교육부 전도사들의 모교인 장신대학교 심휴계공간인 선지동산에서 목사 7명과 전도사 27명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바비큐 행사를 열었다. 교육부 임원들은 교역자들에게 직접 고기를 구워 대접하며, "항상 수고하시는 교역자분들께 진정한 위로와 즐거움, 맛있는 바비큐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초록이 무성한 캠퍼스에서는 큰 웃음이 피어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취재 안하윤 기자

# 붉은 색으로 표현한 숭고의 아름다움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Beauty)과 숭고(Sublime)를 구분했다. 아름다움은 주로 구체적인 대상의 모양과 가지런함과 연결되어 있지만, 숭고함은 특정한 형태가 없는 것, 혹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작가 바넷 뉴먼(1905~1970)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서양미술사에서 계속 충돌한다고 보았다. 그는 한계가 없으며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숭고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특정한 형태를 제거하고 색상만으로 숭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소장되어 있다.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을 뜻하는 이 거대한 붉은 색상의 캔버스(242 x 542cm)에는 다양한 지점을 길게 관통하는 다섯 개의 가느다란 수직선 ‘Zip(지프)’이 그려져 있다. 작품은 한 번에 전체를 볼 수 없도록 크게 그려져, 그 앞에서는 사람이 작품에 깊이 몰입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무한하고 절대적인 카드뮴 레드의 확장된 영역에서 다섯 개의 수직선들은 관람객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하고, 나의 제한된 시각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 2023년 6월호 통권 592호

발행 2023. 6. 1.

발행인 김운성 지도목사 강승훈 편집인 김태영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박순복 김재원 이형일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성수 김윤영 류정현 안동현 안하윤 이동훈 이혜순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미 최윤미 교열 계영희 이광미 유승효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만남 e-book

[mannam.youngnak.net](http://mannam.youngnak.net)



만남 웹진

[www.youngnakmn.net](http://www.youngnakmn.net)





## 시티 오브 조이, 국제시장... 놓치지 마세요

### 6/4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2014)

감독: 권혁만 출연(목소리): 강석우, 이광기, 최강희 상영시간: 1시간 22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 사람들은 그를 두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성자'라고 부른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비통을 믿음으로 이겨낸 손양원 목사의 용서와 사랑이 진솔하게 다가온다.



### 6/11 시티 오브 조이(City of Joy, 1993)

감독: 롤랑 조페 주연: 패트릭 스웨이지, 옴 푸리, 폴린 콜린스 상영시간: 2시간 08분

<미션>의 롤랑 조페의 휴먼 대작 3부작 중 하나.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의사로서 무기력했던 자신에게, 좌절한 미국인 청년 맥스는 깨달음과 구원을 찾아 인도로 온다. 극한 상황에서도 쾌활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활기를 되찾는다.



### 6/18 지지(Gigi, 1959)

감독: 빈센트 미넬리 주연: 레슬리 카론, 모리스 슈발리에, 루이 주르당 상영시간: 1시간 56분

1959년 아카데미상을 휩쓴 로맨스 뮤지컬 영화 '지지'.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의 사교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화려한 뮤지컬. 결혼과 세대 간의 문제를 즐겁게 다룬 줄거리와 아름답고 화려한 무대, 계속되는 황홀한 노래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



### 6/25 국제시장(Ode to My Father, 2014)

감독: 윤제균 주연: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상영시간: 2시간 06분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시대 아버지 '덕수', 그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한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선사한다.



인간, 영웅적이고 숭고한

---

# Vir Heroicus Sublimis

▶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0쪽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바넷 뉴먼(Barnett Newman)

Oil on Canvas, MoMA(뉴욕 현대미술관 소장)

1950~1951

---